

# 제100차 아주대학교대학평의위원회 회의록

1. 일 시 : 2025.01.14.(화) 14:00

2. 장 소 : 해강관 대회의실

3. 참 석 : 위원 총 14명 중 10명 참석

- 참석위원 : 이재호 의장, 노재성 부의장,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평의원, 박상현 평의원, 송재원 평의원, 윤소라 평의원, 이재건 평의원, 이희원 평의원
- 불참위원 : 김홍환 평의원, 노승중 평의원, 허준석 평의원, 호정화 평의원
- 배석 : [본교] 기획처장, 예산팀장, 예산팀 김지혜, 하지영, AUT사업단장, AUT사업단운영팀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기획팀장, 기획팀 김진필

## 4. 의 안

### ○ 보고사항

- 대학평의위원회 구성 변경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사전 보고
- AUT 사업 최근 3개년 사업비 결산 현황

### ○ 심의사항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 자문사항

-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교비회계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5. 주요 회의 결과

### 가. 보고사항

- 기획팀장이 조교대표 평의원, 학생대표 평의원 변경을 보고하다.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사전 보고하고, 의원들은 2024-제3차 임시교무회의 심의 이후 서면결의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하다.

<간서명 란>

의 장

0/242

- 제4조(기구) 별표1 : 첨단ICT융합대학 소속 지원기관 신설(반도체기술혁신원), 교무혁신처 소속 지원기관 전공설계지원센터 신설, 교육평가인증센터 명칭 변경 및 비교과교육지원센터 폐지, 총장직속기구 혁신융합단 명칭 변경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2 : 학과 신설(트랜스내셔널영상문화학과) 및 폐지(의약생명정보시스템협동과정)

- AUT사업단운영팀장은 AUT 개교 후 최근 3개년 사업비 결산 현황을 보고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아주대학교 연계 프로그램, 취업보장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기존 아주대학교의 프로그램을 접목하는 등 발전적 운영을 위한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을 강조하다. 필요 시 우즈베키스탄 동문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유하다.
  - 이재호 의장은 단순히 이익 창출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선진교육 제공 등 대학의 책무를 고려하여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투자와 발전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하며, 학교 특색을 반영한 전공 및 프로그램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다.
  - AUT사업단장은 새로운 전공과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한 정책연구가 진행 중이며, 향후 학교의 비전과 강점을 접목시켜 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다.

## 나. 심의사항

### ○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

- 기획팀장이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설명하다.

- 제4조(기구) 별표1, 제8조(대학원), 제49조(대학원과정의 이수학점) : 대학원명 변경(교통·ITS대학원→교통·모빌리티대학원)
- 제8조(대학원) 및 제53조(대학원과정의 학위수여) 별표4 : 전공 폐지(공학대학원 재료공학), 학과명 변경(교통·ITS학과→첨단교통시스템학과), 학과 신설(교통모빌리티학과)
- 제9조(대학 및 특수학부) 및 제54조(학사과정의 학위수여) 별표5 : 「반도체특성화대학사업」 및 「인공지능 반도체 융합인력 양성 사업」 관련 연계전공 신설(미래반도체, 인공지능반도체)
- 제21조(학생정원) 별표6 ~ 별표8 : 2025학년도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특수대학원 입학정원 반영(변동 없음)
- 제50조(학사과정의 졸업요건) : 소프트웨어및컴퓨터공학전공 졸업학점 변경(140학점→128학점)

<간서명 란>

의 장

0/24

- 참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아주대학교 학칙 개정(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의결하다.
- 평의원은 우리 대학 및 타 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변호사시험 합격률, 자교생 법학전문대학원 진학 비율, 관리 체계 등과 관련하여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다음 평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다.

## 다. 자문사항

### ○ 부속병원회계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 1) 보고사항

- 의료원 기획조정실이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의료수입 목표 하향 조정에 따른 지출예산 재조정 ▲의료파행 장기화에 따른 인건비 및 관리비 조정 ▲2024학년도 예산 집행 사업결과에 따른 예산 재조정 ▲의료외수입 및 지출 조정 등 (국고 및 연구비 등)
- 본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외래, 입원 등 각 부문별 실적 회복 목표 반영 ▲연속사업 반영(파워플랜트 증축, 노후 공조기 교체 등) ▲필수 관리비 외 기타 복리후생 및 소모성 비용 편성 최소화 ▲필수 의료기기 노후교체 및 정보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전산장비 반영

#### 2) 자문사항

- 노재성 부의장은 전공의 관련 정부지원금이 목적에 맞게 지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결산 전까지 요청하다.
- 이재호 의장은 2025학년도 본예산의 공격적 편성에 대한 근거를 확인하다.
  - 이재호 의장은 외래 환자 수를 2024학년도에 비해 5.2% 증가한 수치로 추정한 것에 대해 ①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월별 일평균 환자 수 추이와 ②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취지에 따라 외래 환자가 줄어드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을 고려하면 굉장히 상향된 목표로 보인다는 의견을 개진하다.
  - 기획조정실장은 ① 진료지원 간호사 배치 등의 노력으로 진료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갖추었으며 ② 외래환자의 경증 억제를 꾸준히 관리한 덕에 현재 아

<간서명 란>

의 장 0/24

주대학교 병원의 경증 외래환자 비율은 국가에서 요구하는 수치보다 훨씬 낮은 상황이라고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공격적 예산 편성이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음을 지적하다. 예산을 편성한만큼 지출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며, 구성원들이 예산 편성이 상당히 공격적이라고 느낄 경우 지출을 앞당기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다. 따라서 최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다.
- 이재호 의장은 의과대학의 법정부담금 부족분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질의하고, 의료원 기획팀 파트장은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법인에서 부담하기로 하였음을 설명하다.
- 이재호 의장은 의대 증원에 따른 실습동 건축비 등 재원 마련과 관련하여 사학진흥재단에서 2025년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용자에 대해 학교에서 사전 수요조사에 응했는지 확인하다.
- 이재호 의장은 교육부의 2025년 예산 설명 보도자료에 의하면 2024학년도 1학기 중 “사립의대 교육환경 개선 용자 수요조사”가 있었고, 이를 기반으로 교육부가 2025년 사립대 교육환경 개선용자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됨을 설명하다.
- 의료원 기획팀장은 2024학년도 1학기에 교육부에서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및 향후 소요계획 등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실시안내”를 실시하였고, 의과대학교학팀과 대학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외 별도 용자 수요조사는 없었음을 보고하다.
- 노재성 부의장은 “의과대학 교육여건 현황 및 향후 소요계획 등 파악을 위한 수요조사” 제출 당시에는 각 대학들이 학생 증원에 열의를 가지고 학교가 충분히 교육여건 마련을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했으며, 이는 교육부의 요구사항이었다고 언급하다. 추후 사학진흥재단의 용자 미지원과 관련하여 책임소지를 다룰 가능성이 있으므로 대학에서 준비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재호 의장은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관련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향후 적절한 대비를 위해 중요함을 당부하며, 사학진흥재단 공문과 학교에서 제출한 공문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다.

○ 교비회계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5학년도 본예산(안)

1) 보고사항

- 기획처장이 2024학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2025학년도 본예산(안)을 설명하다.
-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등록금수입 미실현액 조정 ▲국고 사업 예산 증가 및 기금 인출 취소 반영 등 사업조정 ▲부속병원전입금 및 법정부담금전입금 감소분 반영 ▲2024학년도 미사용차기이월자금 예산 반영
- 본예산(안) 편성 기본 방향 : ▲대학경쟁력 확보를 위한 학부등록금 인상 및 대학 중장기 발전전략 수행 ▲광역 모집단위(자유전공학부, ai Lab) 및 첨단학과 증원 등 신설학과 지원 예산 편성 ▲대내외 교육환경 및 정부재정지원사업(RISE체계) 변화에 따른 교내자원의 효율적 재배분 고려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확대 및 국제화사업 지원을 위한 예산 편성 ▲대학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기부금, 임대수입, 위탁교육, 평생교육 등 수입원 다각화

2) 자문사항

- 2025학년도 학부 등록금 책정(안)에 대해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다.
- 이재호 의장은 최근 10년간 신입 교원의 이직 현황 자료를 검토하며, 이는 본교의 경쟁력 약화를 시사한다고 지적하다.
- 기획처장은 단순히 교원의 이직 문제뿐만 아니라 우수 교원을 초빙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며, 우수 교직원 확보 및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등록금 인상과 더불어 보수 현실화 등 교직원 처우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고 답변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학생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설득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주요 사립대학과의 등록금 비교 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다.
- 이재호 의장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학업 지속에 문제가 없도록 장학금 확충에 신경 써줄 것을 당부하다. 이에 대해 기획처장은 학교는 그동안

<간서명 란>

의 장

0/292

등록금수입의 일정 비율은 복지 장학으로 편성하여 꾸준히 지원해 왔으며 향후에는 학생 수요를 감안한 장학금 지원 제도를 수립하여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하다

- 2025학년도 대학 평판도 제고 사업 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다.
  - 강원구 평의원은 학교 홍보와 신입생 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필요 시 예산 강화를 고려할 것을 제안하다.
  - 이재호 의장은 평판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질의하며, 홍보 방안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하다.
  - 김태균 평의원은 평판도 조사 방식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토대로 효과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언급하다. 또한, 언론 노출을 통한 홍보 강화를 제안하며 교수진의 업적 등이 언론에 적극적으로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통해 아주대학교의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각인시킬 필요성을 제기하다.
  - 기획처장은 평판도 제고를 위해 유관 부서들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전략 수립 및 지속적인 대응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하다. 또한, 대학의 평판도는 단순히 예산 투입의 문제가 아닌 평가 구조 자체의 문제도 존재하기 때문에 중앙일보 등에 불합리한 평가 지표의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추가 예산을 투입하여 학교 홍보 및 평판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변하다.
- 2025학년도 신입교원 정착연구비 예산 배정에 대해 평의원은 다음과 같이 자문하다.
  - 이재호 의장은 정착연구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연구비 지원이 신입 교원의 대학 잔류 가능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설명하다. 특히, 신입 교원이 자신의 연구를 안정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대학의 장기적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므로 이를 우선순위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다.
  - 기획처장은 신입 교원 정착연구비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신입 교원과 재직 교원을 모두 아우르는 정교한 정책 설계를 마련 중이라고 설명하다. 아울러, 추후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는 대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다.

<간서명 란>

의 장

이재호

- 이재호 의장은 법인이 법정부담전입금 수입 부담 비율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점에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법정부담금 부담 비율을 꾸준히 늘려갈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다. 더불어 실질적인 법인 기여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부담하는 의대 유틸리티 비용은 제외한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다.

2025. 1. 14.  
아주대학교 대학평의위원회

의 장	이재호	(의/평) 이재호
부의장	노재성	(서/평) 노재성
평의원	강원구	(서/평) 강원구
평의원	김주용	(의/평) 김주용
평의원	김태균	(서/평) 김태균
평의원	박상현	(의/평) 박상현
평의원	송재원	(의/평) 송재원
평의원	윤소라	(의/평) 윤소라
평의원	이재건	(의/평) 이재건
평의원	이희원	(의/평) 이희원